

악재는 저가매수 타이밍?... 서학개미, 추락하는 테슬라 ‘줍줍’

연초 주가 400달러→230달러로 서학개미, 일주일간 6584억 매수 2배 추종 ETF도 3088억 사들여 월가 투자사, 목표가 잇달아 하향 서학개미 투자손실 급증 ‘주의보’

#직장인 이모(40)씨는 지난 6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을 주당 263달러에 매수했다. 지난 1~2월에만 해도 평균 매입 단가는 370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5일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물타기’(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에 들어갔다. 이씨는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많이 내렸다. 조만간 반등할 것이란 생각에 2000만 원어치를 추가 매수했다”고 말했다.

용감함일까, 무모함일까. 테슬라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가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학



ChatGPT로 생성한 ‘주가 하락세인 테슬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이미지.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약 4억5449만달러(6584억원)를 사들였다. 개미들은 테슬라를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도 2억1320만달러(3088억원) 어치 사들였다.

연초 400달러대였던 테슬라 주가는 230달러대로 떨어졌다.

테슬라는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DOGE·도지) 책임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하면서부터 주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달 들어 18.76% 떨어졌으며, 이는 8주 연속 하락세다. 전날이었던 17일에도 4.79% 급락했다. 실적 우려와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이 겹친 것으로 풀

이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는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테슬라 시설에서는 화재와 기물 파손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에게 테슬라의 악재는 ‘저가매수 타이밍’으로 여겨지는 모습이다.

전날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FSD(Full Self-Driving)를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다시 약세를 보였다. 현지 경쟁력이나 수익성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후 파이낸스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무료 FSD 제공은 현지의 라이벌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학개미사이에선 테슬라의 주가급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빛나간다면 서학개미의 투자손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자산운용사 임원

은 “주가가 많이 내리자 ‘돈 좀 벌어야겠다’며 테슬라 주주가 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손실을 줄이려 물타기에 나선 기존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즈호 애널리스트 비제이라케시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내렸다. 분석가들은 2월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미국, EU중국내 판매량이 시장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델Y의 개량모델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말했다.

앞서 JP모건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작년 동기 실적보다 8% 감소한 35만5000대로 제시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내렸다. 이는 월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를 다루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370달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예심·수익 부담... 기술특례상장 포기 잇따라

올해들어 기업 5곳 특례상장 접어 “창업 후 상당기간 적자상태 유지 바이오·헬스기업에 더욱 치명적”

기술특례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층 높아진 상장 문턱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5개 기업이 꿈을 접었다. 이는 전체 상장예비 심사 철회 기업 7곳(스팩·이전 상장 등 제외)의 71%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강화하면서 예심 통과·수익성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코스닥 퇴출 요건을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 3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을 면제받는다.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상장폐지 요건보다는 허들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과두의 ‘뽕튀기 상장’ 논란 이후 상장 예비심사도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3조 3000억원 대비 16.4% 증가했지만, IPO 기업 수는 82개사에서 77개사로 오히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감소했다. 예심 단계에서 철회를 선택한 코스닥 기업은 35개사(스팩·이전상장 등 제외)로, 이는 예심을 청구한 전체 기업의 34%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재무요건 허들에 불멘 소리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등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육성된 근저에는 기술성 평가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기술성평가 기업에 대한 눈높이를 매우 높게 잡고 있다”며 “최근 들어 벤처캐피탈(VC)의 자금이 기술평가기업들에 수혈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고사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약 개발 후 상당기간 동안 적

자를 유지하는 바이오·헬스기업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예심을 철회한 기술특례 기업 5곳 중 3곳(엠텍스바이오·레드앤비·레메디)도 바이오기업이다.

김석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코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은 바이오 헬스 회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약 개발 회사들은 창업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짚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이 상장조건이나 유지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나스닥에는 적자 상태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10년 이상 적자 상태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특히 신약개발 기업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 기준에 따라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며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삼성운용, 하락 리스크 관리 ‘버퍼 ETF’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 ETF’

삼성자산운용이 아시아 첫 버퍼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미국 증시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상승장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ODEX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 ETF를 25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ETF는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하며 파생금융상품인 ‘옵션’을 활용해 1년 기간의 종료일 기점으로 약 10% 수준(미국 달러 기준)까지 하락을 완충한다.

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S&P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평균 하락률은 -7.5% 수준이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약 10% 수준의 하락 완충 장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S&P500 지수가 내려갈 때 손실을 줄이는 ‘버퍼’를 1년 만기의 옵션으로 구축하며,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의 옵션) 매수와 매도를 통해 버퍼를 구현한다.

풋옵션의 프리미엄(웃돈)을 지불할 때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콜옵션(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의 옵션)을 선택해 매도하는데, 해당 콜옵션의 행사가가 ‘캡’(cap)이다.

캡은 1년 동안 S&P500 지수가 상승할 경우 버퍼형 ETF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 상승치가 된다. 즉 하락 완충 정도와 최대 상승치를 미리 정해놓게 된다.

박명제 삼성자산운용의 ETF부문장(부사장)은 “삼성자산운용은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빠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투자 솔루션으로 버퍼ETF를 준비해왔고 아시아 최초로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투자정보’ 애니메이션 공개

유튜브서 ‘투자네트’ 오픈

삼성증권은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투자정보 영상 ‘투자네트’를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Samsung POP)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네트’는 투자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를 위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업과 산업을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캐릭터인 ‘서치’와 ‘앤츠’가 각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와 실적 변동 이슈를 짚어준다. 금융 상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

성했다. 또한 1분 내외의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된 숏폼으로 구성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리서치 리포트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리서치 콘텐츠”라며, “숏폼 애니메이션 ‘투자네트’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토스증권, 미국주식 거래시간 확대

오후 5시~ 익일 오전 8시50분까지

토스증권이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을 연장한다.

18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이번 연장으로 토스증권의 미국주식 거래 가능 시간은 프리마켓·정규장·애프터마켓 포함 기존 14시간에서 15시간 50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 고객이 라면 누구나 프리마켓이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 애프터마켓이 종료되는 익일 오전 8시 50분까지 편리하게 미국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서머타임 기준, 해제시 1시간씩 순연) 데이마켓이 재개될 경우 토스증권의 미국주식 거래시간은 23시간 50분으로 사실상 24시간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거래시간 확대는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발표나 주요 뉴스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객들의 미국주식 투자 편의와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해외주식 거래를 처음 선보인 토스증권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거래종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투자 방식을 소개하는 등 꾸준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해외채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해외주식 옵션 서비스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zelkova@